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무소유정신 실증

출가승려는 그동안 '삼의일발(三衣一鉢)'의 청빈한 삶을 사는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스님들은 토크쇼란 곳에 TV, 냉장고, 오디오 등 그야말로 엄청난 실험실 부럽지 않을 만큼 갖추어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스님들의 이야기임이 분명하지만, 마치 승가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된다.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에서 읽은 일화가 새삼 되새겨진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것이란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털 한 쌍뿐.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공판. 이것 뿐이오"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임탁회의에 참석하려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청빈한 삶의 모습**  
 사회에 모범인데...  
 스님들에게 욕심을 잃고 수행 정신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발우와 가사만을 남기고 일백여 원의 울리는 열반의 종소리를 들으며 현세의 삶을 떠나고 말하면 이슬만을 먹고 살라는 것과 같다고 판단을 들을지도 모른다.

종단적으로 스님들에 대한 노후대책이 전무하고 스님들이 정재를 직접 관장하는 실정에서 스님들의 뒷안으로 돌리기에 무리인 것도 사실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스님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버리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스님들이 초발심의 자세로 무소유정신을 지키면서 자바를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불교계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세상에서는 출가 승려들이 수행이라는 명분보다 쉼이라는 잣대에 관심을 뒤 그릇되고 수군거린다. 스님들이 수행정진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종단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선결과제다. 우리는 언젠가 한번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필선 기자(pado@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포 번호 : 8003478번

## “불교자주권·법통 수호하자” 다음달 15일 총무원장 선거

법불교도 쟁기대회 1만명 동참...“사법부 각성” 등 결의문 채택

조계종 법통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탄성 일로회의 의장)는 12일 오후 2시 조계사 경내에서 탄성 도원 비룡 녹원스님 등 원로위원 11명과 22개 교구본사 주지 등 중진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만여명(스님 2천, 신도 8천)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한 법불교도(사부대중) 쟁기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법통을 수호하기로 결의했다.



○12일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쟁기대회’에 참석한 1만여 사부대중은 사법부 각성과 정화회의의 해산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는 오후 2시 명종과 명고로 시작을 알렸으며, 경과보고, 대회사, 해암 종정 교시 봉독, 일로회의의 결의문 낭독, 사법부 규탄연설, 결의문 채택, 불교자주와 불교도 서명운동 선포, 발언문 낭독의 순으로 1시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고산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꾀하는 사법부에 의해 자행된 분명한 법리”이라며 “불교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법통을 짓밟는 사법부에 대해서 2천만 종도의 이름으로 그 부당성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종회의장 법통스님은 사부대중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불교에 가해졌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압박과 편향적인 종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제도적인 종교편향정책의 결과”라며 “불교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전통 민족종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법부 각성, 담당관사 파면 △불교 자주권 침해 방조한 문화관광부장관 각성 △정화회의의 해산, 불교재산 탕진하는 밀해스님 참회 △고산스님 중심으로 단결해 사태 조속히 수습 △불교자주권 수호 법불교도 서명운동 동참 △정부당국은 사법수령환경 개선하는 법령 개정 △이러한 요구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제2차 쟁기대회와 장구사삼 산문폐쇄 등을 통해 강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선관위 공고**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선거가 11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은)는 14일 중앙총회사무처에서 52차 회의를 열어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15일 총무원장선거사무처에 총무원장 선거 실시를 공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덕은스님은 회의가 끝난 후 “법원(서울지법 민사42부)의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과 고산스님의 항소 포기, 14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을 근거로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한다”며 “선거일정이 공고되면 선거인단 선출, 후보등록 등의 절차는 총무원장선거법 등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덕은스님은 또 “총무원장 출마자는 총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지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136회

## 조계종사태 징계자 재심사

**중회, 특별법 제정**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 불가”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통)는 12일 열린 144회 임시총회에서 ‘해종형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한 징계자에게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하여 징계받은 자들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킴으로써 종단의 안정을 도모할’을 목적으로 제정했으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해종형위법 및 98년 12월 29일 이후 징계받은 스님들이다. 대상자는 종단기관지 공고 후 7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재심요청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자에게는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총회는 또 이날 총무원장선거법 등을 개정했다. 중회는 다음 달 15일 실시되는 총무원장선거를 30대로 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회의장 법통스님은 12일 ‘해종형위 징계자특별법’을 13일자로 발표했다. 또 이날 개정된 현행과 총무원장선거법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

**最古 고구려 금니불**  
 고구려연구회 14일 공개 6세기 후반 제작 추정

국내 최고(最古) 금니불로 추정되는 고구려 금니불(래임상(사진)이 (사)고구려연구회(이사장 서갑수)에 의해 14일 공개됐다. 높이 13.5cm의 이 불상은 해방 전 광양 근방에서 출토된 것으로 제작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교원대 박물관 장영호 교수는 “작은 입가에 나타난 은은한 미소와 상투처럼 솟은 육체, 크고 볼록한 눈두덩 등 고구려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니불은 진후로 빛은 불상이다 금박을 입힌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시대 동경성에서 출토된 소조불상 조각(서울대 소장)과 통일신라말기로 추정되는 성주사터 출토 소조불두(동국대 소장) 등이 가장 오래된 금니불로 알려져 왔다. 오종욱 기자

### 공 고

총무원장선거법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일 : 불기2543(99)년 11월 15일 월요일 (음력 10월 8일) 오후 1시 ~ 4시까지
- 선거장소 : 조계사 대웅전(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 총무원장입후보자 자격 : 승랍30년 이상, 연령50세 이상, 법제2급 이상의 비구로써 총무원장 선거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 2543(99)년 11월 5일 - 11월 7일
- 입후보자 등록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선관위 양식)  
 2. 호적등본 1부 (원적이 표시된 등본)  
 3. 이력서 1부  
 4. 사진 (반명함판) 5매  
 5. 종책집 (교계신문 게재용)
- 입후보자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중앙총회 사무처)
- 선거권 자격(선거권자) : 중앙총회의원(81명) 및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한 선거인(240명)
- 선거인단명부열람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중앙총회 사무처)
-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중앙총회 사무처)  
 전화 02)735-5860, 팩스 02)733-8286

\* 각 교구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 선출기간은 불기 2543(99)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불기 2543(99)년 10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 순**